

일상 속 헌법 가치 되새긴다, '다시 온 0717, 헌법 국민을 비추다' 대국민 캠페인 진행

- 5월부터 제헌절까지 광화문 게릴라 강연, 헌법 필사챌린지 등 참여 가능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제헌절 공휴일 지정과 국민주권의 날(12월 3일) 신설을 기념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가치를 국민과 함께 되돌아보는 '대국민 참여형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5월부터 제헌절(7월 17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헌법이 단순히 활자 속에 머무는 법 조문을 넘어 국민의 일상을 지켜온 실질적인 가치이자, 미래 세대에 전수해야 할 소중한 유산임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제처는 지난 1월 헌법 강의 대국민 공개를 시작으로, 교육부·법무부·헌법재판소와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헌법 정신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캠페인의 핵심 행사인 '광화문 헌법 게릴라 강연'은 국민적 인지도가 높은 '큰별쌤' 최태성 역사 강사와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오는 12일(우천 시 순연 가능) 광화문 육조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강연에서 최 강사는 치열한 근현대사를 관통해 우리 곁에 자리 잡은 헌법의 역동적인 서사를 시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헌법 가치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나에게 헌법이란?' 질문에 대한 시민 717명의 진솔한 목소리를 담은 기획콘텐츠를 제작하며, 국내 대표 문구 브랜드인 모나미와 협업하여 '헌법 손으로 남기다' 필사 챌린지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캠페인을 위해 특별 제작된 '헌법 에디션 모나미153펜'도 배포하여, 국민들이 헌법 조문을 직접 적어보며 그 숭고한 의미를

손끝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제헌절 공휴일 지정은 국민 주권의 의미를 국가적으로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을 수호해 온 헌법의 가치가 다음세대까지 확고히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대변인실	책임자	과 장	안은경	(044-200-6511)
		담당자	사무관	강예지	(044-200-6515)

